

KG모빌리티 “EV·자율차·AI 등 미래기술 드라이브 건다”

쌍용자동차, 35년 만에 사명 변경

기술개발·적용 등 이동서비스 집약 기업 정상화로 올해 흑자전환 목표 서울모빌리티쇼 통해 방향성 소개 인증 중고차 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새 출발에 나선다. 이번 사명 변경으로 35년 역사를 이어온 쌍용자동차라는 이름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쌍용차는 22일 평택 본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정용원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 그리고 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KG 모빌리티(KG Mobility)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

KG 모빌리티는 1954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인 하동환자동차제작용소 출발해 1977년 동아자동차 그리고 1988년 쌍용자동차 이후 35년 만의 새 이름으로, 70여 년의 자동차 역사를 갖고 있는 명실

공히 대한민국 SUV 대표 기업이다.

모빌리티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와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등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동성 서비스 제공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KG 모빌리티는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EV 전용 플랫폼,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분야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지난해 8월 KG그룹이 인수한 이후 4분기

매출 1조527억원, 영업이익 41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 흑자는 6년, 매출 1조원 돌파는 4년만에 이뤘다. 올해는 흑자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쌍용차는 KG모빌리티로의 출발을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달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기자동차 토레스 EVX를 비롯해 KR10, O100, F100 등 다양한 디자인 콘셉트 모델 공개를 통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슬

로건 ‘Go Different. KG MOBILITY’도 소개했다. 이는 쌍용차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도전해 나갈 미래 방향성을 담고 있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독자기술로 사륜구동차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최초로 SUV 풀 라인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SUV 명가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KG 모빌리티로의 사명 변경을 시작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도전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G 모빌리티는 사명 변경과 함께 인증 중고차 사업과 특장 사업 등 다양한 신규 사업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은 5년·10만km 이내의 KG 모빌리티(쌍용차) 브랜드 차량을 매입해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조직 및 체제 등 사업준비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동 사이드 스텝과 데크탑(Deck-Top) 등 자동차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용품 사업 강화와 함께 특수 목적의 특장차 제작과 판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35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며 “앞으로 새로운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EV 전용 플랫폼 개발과 SDV, 자율주행차, AI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해 미래 모빌리티 동반자로서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화학, 中 염호리튬사업에 RO필터 공급

리튬 생산 필요에너지 획기적 감축 경쟁사 제품보다 내구성도 뛰어나

LG화학이 중국 최대 염호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RO필터(Reverse Osmosis Membrane)를 공급했다.

LG화학은 22일 중국 중신(CITIC) 그룹의 귀안(Guonan)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 RO필터 1만여 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중신 그룹은 중국의 대형 국유 기업으로, 올해 칭하이성에서 본격 가동에 들어간 귀안 프로젝트는 중국 최대 규모 염호 리튬 추출 사업이다.

리튬 추출 프로젝트를 운영(EPC,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하는 칭하이위안(TUS-Qingyuan)은 LG화학의 RO필터 등을 활용해 연간 2만 톤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5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여과 장치를 활용한 리튬 추출 프로젝트로는 세계 최대 생산량이다.

RO필터를 활용하면 리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염호에 녹아있는 리튬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증발시켜 농도를 높여야 하



LG화학 청주공장 RO필터 생산라인에서 직원들이 테스트를 마친 수처리 필터를 살펴보고 있다. /LG화학

는데, 기존에는 주로 열을 가해서 물을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RO필터의 역삼투압 공정을 거치면 열을 가하지 않아도 물 분자만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역삼투압은 농도차가 있는 두 용액을 반투막(멤브레인)으로 분리하고 농도가 높은 쪽에 압력을 가해 물 분자만 통과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주로 해수담수화 등에 활용되는 LG화학의 RO필터는 불순물 제거율이 높으면서도 생산 유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경쟁사 제품보다 뛰어난 내구성도 인정받아, 귀안 프로젝트 이외에도

다수의 중국 리튬 추출 프로젝트에서 LG화학의 제품을 사용 중이다.

중국의 9대 염호 리튬 추출 사업 중 5개는 RO필터 방식이 쓰인다. 중국 RO필터 시장은 매년 8% 이상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2조 2000억원(119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LG화학은 중국과 남미의 다른 염호 리튬 프로젝트에도 RO필터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효율적인 리튬 추출을 위해 LG화학은 고려대학교와 손잡고 차세대 리튬 직접 추출(DLE, Direct Lithium Extraction) 공정용 RO필터도 개발하고 있다. 염호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하는 공정으로, 기존 수개월 이상 걸리던 리튬 농축 과정을 몇 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기술이다. LG화학은 이 과정에서 리튬의 회수율과 순도를 높이고 내구성도 향상시킨 RO필터 소재를 연구 중이다. 리튬 직접 추출이 본격 적용되면 공정이 단순해지고 추출 효율은 높아지지만, 리튬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한국지엠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가성비 갑’ 트랙스 크로스오버 첫 선

한국지엠 쉐보레

소형SUV 성능·가격 새 기준 제시 트림별 판매 가격 2052만원부터

한국지엠 쉐보레가 신형 소형스포츠 유틸리티차(SUV) 트랙스 크로스오버로 내수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예상을 뛰어넘는 가격과 첨단 기술을 대거 적용하는 등 한국지엠의 침체된 내수시장 판매량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경쟁 모델인 현대차 코나와 기아 셀토스 등은 물론 경쟁 SUV인 현대차 캐스퍼와 가격 경쟁에서도 부족함이 없다.

한국지엠 쉐보레는 22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공개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제너럴 모터스(GM)의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쉐보레의 엔트리 모델이다.

로베르토 럼펠 한국지엠 사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국내 출시로 GM의 새로운 타깃 세그먼트인 크로스오버 시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전세계는 물론 한국 시장에서 올해 가장 기대받고 있는 모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파워트레인인 GM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E-Turbo Prime’ 엔진이 탑재됐다.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만족시킨다. 말리부와 트레

일블레이저에 적용돼 뛰어난 파워와 연비를 입증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에는 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신형 1.2리터 E-Turbo Prime 엔진이 적용됐다. LS-LT·ACTIV·RS 등 총 4가지 트림으로 국내 출시되며 최고출력 139마력, 최대토크 22.4kg·m로 복합연료비는 L당 12.7km다.

안전·보조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특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 중 최초로 오토 홀드 기능이 적용돼 차량 정지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제어, 운전자의 주행을 돕는다. 6개의 에어백과 전방충돌 경고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등도 기본 탑재했다.

전장은 4540mm, 전폭 1825mm, 전고 1560mm다. 휠베이스는 2700mm로 쉐보레 모델 중 짧은 리어 오버행(뒷바퀴 축을 기준으로 범퍼 끝까지의 거리)을 통해 넓고 쾌적한 2열 레그룸을 구현했다.

외장 디자인은 역동성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크로스오버를 상징하는 알파벳 ‘X’ 형상을 디자인 전반에 디테일을 살리는 요소로 활용하고, 넓은 휠베이스와 낮게 떨어지는 루프라인 등을 통해 스포티함을 표현했다.

가격(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은 ▲LS 2052만원 ▲LT 2366만원 ▲ACTIV 2681만원 ▲RS 2739만원이다. LS트림은 캐스퍼 풀옵션(2057만원)보다 5만원 저렴하다. /양성운 기자

롯데케미칼, 인니 석화단지 건설자금 3.1조 조달 완료

국책금융기관들 적극적 지원 통해 글로벌 금융 12곳서 장기차입 계약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자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현지 석유화학단지 건설에 외부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22일 피티 롯데 케미칼 인도네시아(PT LOTTE Chemical Indonesia)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출·보증 및 보험 등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24억달러(3조1000억원)를 12년간 장기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총 투자금액 약 39억달러(약 5조1000억원)가 투자되는 인도네시아 LINE(L. OTTE Indonesia New Ethylene) 프로젝트는 연간 100만톤의 에틸렌과 52만톤의 프로필렌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초대형 석화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2025년 기계적 준공 및 상업생산이 목

표다.

롯데케미칼 측은 “국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석유화학제품 순수입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롯데케미칼이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또 인접한 롯데케미칼타이탄 자회사(PT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의 연산 45만톤 규모 폴리 에틸렌 생산공장과 시너지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